

“모든 만성질환 국가가 중점관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대책 발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추진 배경

- 국민 소득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노인인구 증가, 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질 높은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급증.
-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맞추어 국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국민건강증진 정책이 필요.

□ 2010년의 국민건강목표의 주요 내용

- 2010년의 국민건강증진계획의 목표는 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질병과 같은 장애가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전체 수명 중 질병이나 장애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수명'을 현재의 66세에서 75세로 끌어올리고, 전 생애의 92%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은 질병 등을 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균수명은 75.9세에서 81.9세로 연장하며, 현재 평균 19.6%인 위암, 자궁암, 유방암의 검진율은 50%까지 늘리고,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은 낮추는 것이며, 만성질환분야에 있어서 고혈압 유병률을 100명당 27.3명에서 20.2명으로, 당뇨병 사망률을 10만명당 22.0명에서 19.0명으로, 뇌혈관질환 유병률을 1,000명당 11명에서 10.4명으로 줄이는 등 각 분야별 목표를 제시.
- 이러한 목표 수준은 OECD 선진국의 수준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토론

과 검증을 거친 것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 할 것임.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의 내용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각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요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음.
- 영·유아(0세~6세)는 정상적인 성장 발달 지원에 초점을 두고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기에 영유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아동·청소년기(6세~19세)는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금연, 절주, 청소년 성 문제, 약물중독예방 등을 집중 추진하고, 취약해지기 쉬운 치아건강을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등 구체적인 보건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청·장년기에는 흡연·폭음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을 줄이는 한편, 구체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노년기에는 특히 문제되는 치매의 관리·예방을 위해 치매 전문요양병원 등 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해 간병비 지급 등을 추진.
- 특히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금연·절주·영양개선·운동 등 생활습관의 개선, 전염병·부정·불량식품 등 건강 유해요인의 근절,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등도 함께 추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적인 추진체계 구축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위주로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전체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과 평가체계를 마련.
- 지방에는 각 지역의 보건소를 주축으로 지역 내 의사·약사와 같은 보건의료인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내의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산업의 발전 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 특징. 7